

偶像 問題에 關한 理論과 實際를 읽고 (1)

姜虛峰

權九玄氏의 『偶像 問題에 關한 理論과 實際』 --맑스主義者의 一考를 要함 -- 이란 評論을 읽고 論者의 注文을 甘受하여 未熟한 맑스主義로써 『一考를 要』한 바 잇섯다. 論者의 注文과 가티 『一考』이다. 決코 權九玄氏의 論文을 批評, 究明한 것은 안이다. 그러나 『一考』式에 잇서서 權氏의 注文에 『一考』를 加味한 바 잇슬 것이니, 그는 맑스主義者로써 맑스主義만 『一考』對象으로 한 것이 아니라 權氏의 理論的 武器인 無政府主義까지 『一考』의 對象으로 한 것이다.

▽-----△

權氏의 『偶像 問題에 關한 理論과 實際』에 展開된 現論的 內容은 맑스主義者의 日常 行動을 所謂 常識的으로 批判하여 그 常識的 批判의 結果로 偶像 問題에 關하여 맑스主義의 理論과 實際가 矛盾이 된다는 것을 摘摘하랴으로 理論的 努力을 消費한 것으로 볼 수 잇슬 것이다. 그럼으로 權氏는 偶像 問題에 關하여 맑스主義의 理論과 實際를 科學的으로 分析, 究明, 批判을 하지 못하고 所謂 常識的(事物의 發生 過程에 잇서서 原因과 結果를 無視한)으로 考察하였슴으로 『門外漢인』 權氏로 하여 『錯意的 觀察』을 하게 된 것인가 한다.

이럼으로 우리는 權氏 評論 『偶像 問題에 關한 理論과 實際』를 分析, 究明, 批判의 直接의 對象으로 取扱하지 안 하고, 그에 對하여서는 단지 考察만 하면서 或은 引用만 하면서 無政府主義 一般을 分析, 究明, 批判할 것이다. 理論的 事業이 終了하면 맑스主義에 『一考』를 더 설 것이다.

一, 現代 無政府主義의 發表 經路

現代 無政府主義를 歷史的으로 考察할 때 自體의 理論的 發展 過程을 分析, 究明함을 考察에 先行 階段으로 하지 안하면 아니 될 것이다.

『맑스·스킬나』에 個人主義的 無政府主義 理論을 無政府主義 思想의 初期 理論에 잇서서 代表的 理論으로 볼 수 잇을 것이니, 이 理論에서 個人主義的 諸要素를 揚棄하면서 形而上學的 無政府主義 理論을 戰鬪的 無政府主義 理論에까지 發展케 함에도 理論的 洗流를 無數히 經驗함은 勿論이엇섯다. 그러나 戰鬪的 無政府主義 理論의 最後에 組織的 理論은 샤쿠닝[바쿠닌]의 政治 理論과 폴톤의 經濟理論일 것이니 우리가 이제 『샤쿠닝』의 政治理論과 폴톤의 經濟理論을 分析, 究明, 批判함은 現代 無政府主義를 歷史的으로 考察할 쟈 그 先行的 事□으로 그 理論的 發展過程을 分析, 究明함에 잇서서 正當한 順序일 것이다. 이리하여 우리는 現代 無政府主義 卽 無政府 共產主義에 理論的 完成者 『크로포트킨[크로포트킨]』의 理論에까지 分析, 究明의 武器를 使用할 것이다.

▽-----△

그러면 『샤쿠닝』의 無政府主義的 政治理論과 『폴톤』의 無政府主義的 經濟 理論은 엇더하엿던가? 우리는 順序로 『폴톤』의 經濟理論을 分析, 究明하여보 자.

『폴톤』의 經濟理論은 社會에 經濟 過程에 잇서서 使用價値에 首位를 두면 서 自家 理論을 發表시켓나니, 『人類』가 그 生活 過程에 잇서서 自然的인 쏘 는 生産的인 것을 莫論하고 生産的 一般에 잇서서 保有되는 能力을 特히 使用價値라고 命名할 수 잇다(폴톤著 經濟的 矛盾의 體系)라고 말하엿고, 쏘 『폴톤』의 經濟理論은 使用價値의 交換價値를 그들의 性質上 相互 排斥하면서 잇다고 하고, 作用 形態에 잇서서는 反比例的이라고 認證하고 마럿나니, 社會에 經濟 過程에 樣式 生産, 交換, 消費을[를] 『폴톤』의 特有的 思想 樣式 인 所謂 『經濟的 觀念에 發生』에 依한 消費萬能 經濟過程 樣式

消費 → 生産 → 交換

性質上 相互 排斥한다.

作用 形態上 相互 反比例한다.

이란 變質的 樣式으로 變化케 하고 말엇다.

『經濟學者는 價値에 二重性을 明瞭하게 說明하엿다. 그러나 그들은 그와 쏘 가튼 明確한 方法으로 說明하지 못한 것은 矛盾性이다. 여기에 우리들의 批判은 開始된다. 使用價値와 交換價値 相互間에 늘[놀]낼 만한 對立이 存在 하고 잇스니 이 事實에 經濟學者들은 極히 單純한 事情 以外 何等에 事實도 認證할 수 업다는 것을 指摘하는 것만으로는 不充分하다. 以外觀的 單純性의 潛在하야 잇는 深遠한 神秘를 指摘하는 것이 必要하다. 그 神秘에 徹底함은

우리들의 任務이다. 專門語로 말하자면 使用價値와 交換價値와는 相互的 反
比의 基礎를 占有하고 있다.』